[UCI]I804:24011-200000231914

플라톤에서 좋은 것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ood in Plato

2007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홍 기 오

플라톤에서 좋은 것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염 수 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도덕윤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 · 윤리교육전공

홍 기 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537 2007-04-09

홍기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재 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 재 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염 수 균 인

2006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ii

1. 머리말 ····· 1

2. 좋은 것과 행위의 목적 ····· 3

3. 행복과 좋은 것 ····· 7

4. 자체에 의해서 좋은 것과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좋은 것 ····· 11
   4.1. 자체에 의해서 좋은 것 ····· 11
   4.2.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좋은 것 ····· 12
   4.3.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비교 ····· 17

5. 탁월성 ····· 20
   5.1. 탁월성과 좋은 것 ····· 20
   5.2. 사회적 탁월성과 자연적 탁월성 ····· 21

6. 좋음의 이데아 ····· 28
   6.1. 태양의 비유 ····· 28
   6.2. 선분의 비유 ····· 29
   6.3. 동굴의 비유 ····· 32

7. 맺는 말 ····· 37

참고문헌 ····· 39

ABSTRACT

A Study on Plato's the Idea of the Good

Ki-oh Hong
Advisor: Su-kyun Youm Ph.M
Major in Moral and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on the good in Plato. Plato asserted that everyone always pursues what is good for oneself. To pursue what is good for oneself is a matter of what to choose and how to live one's life. Meaning of 'good' can be divided into "excellent" and "beneficial." What "excellent" means is that it is functionally good, like a good house or a good car. "Beneficial" is interpreted on the other hand as that which it is "good for" something, just like saying a vegetarian meal is good for our health. In order to understand the good one must know its context.

According to Plato we seek and pursue good things through our action, because we want to be happy. Happiness in Plato's sense is almost equivalent to "acting well,' or "living well," which are related to excellence. When we say something is good, it indicates it has the ability to excel others of its kind. Such ability is called excellence. Someone who is excellent must have excellent soul and cannot but be happy. Man is happy because he is excellent. What

is good is beneficial because it brings happiness.

According to Plato, only an excellent man can live well. This is equivalent to saying that in order to have a happy life, one must wish to become an excellent person. Because anyone who has excellence is sure to be happy by the definition of excellence and happiness, the most important good among goods is excellence. In *Republic* sophia, courage, moderation and justice are regarded as main excellences. In Euthydemos sophia or phronesis is said to be the good itself.

But in *Republic* the Idea of the good is said to be the good itself. That is the cause of goodness of all goods and which all rulers is required to know. For that knowledge is necessary to know what things are really good. The essence of sophia is the knowledge of the Idea of the good. Socrates explains the Idea of the Good through his analogies of the sun, line-segment, and the cave. He says that Idea of the Good is the cause of all beings including the sun as well as the cause for all the right things.

1. 머리말

『프로타고라스』는 '우리에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1] 그리고 『메논』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을 때뿐이라고 말한다.[2] 그러한 논의들은 모두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추구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주장은 간혹 플라톤의 윤리관을 이기주의적 윤리관으로 해석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플라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당위가 아니라 항상 자신에게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플라톤은 이기주의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3]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의 문제는 곧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것은 곧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된다.[4] 플라톤에서 그 문제는 어떤 하나의 대화편 또는 어느 한 시기에서만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쳐 문제되고 있고, 여러 대화편들이 그것에 관한 논의를 전체 대화의 주제로서 또는 부분 주제로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플라톤에서 '좋은 것'이라는 말로 지칭되는 것들에 대한

---

1) 『프로타고라스』 353c이하.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플라톤은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한 The Loeb Library 시리즈의 플라톤 대역본을 번역한 것이다.

2) 『메논』 76d.

3)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주장은 심리학적 이기주의(psychological egoism)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프랑케나, W. K., 윤리학, 황 경식 옮김, 종로서적, 1984, 37-42쪽을 참조할 것.

4) 고대 윤리학에서 선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그 표현 양식이 사실에 관한 물음인 듯한 인상을 주기 쉽지만 내실에 있어서는 당위에 관한 것, 즉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김 태길, 윤리학, 박영사, 1983(1964), 22쪽. 국가 352d에서는 정의가 좋은 것인가를 따지는 그곳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논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플라톤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에 대해 대화편에서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들 상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좋은 것 자체로서 좋음의 이데아가 제시된다. 좋음의 이데아는 '좋은 것 자체가 무엇인가' 또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일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그것의 정체를 밝히는 작업이 본 논문의 중심 내용을 이룬다. 좋음의 이데아는 형이상학, 인식론, 사회철학, 윤리학에 모두 걸린 문제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플라톤의 전체 철학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위 세 가지 비유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해석이 주어져 왔고 해석가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플라톤 철학 내에서 그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위치와 특히 그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보여주는 심각한 의견 차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본문을 정확하게 정리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에서 좋음의 이데아에 대해서 말하는 주장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좋은 것과 행위의 목적

좋은 것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일 '탁월한'의 의미에서의 좋은 것이라면 기능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좋은 것은 예를 들자면 '좋은 집', '좋은 칼', '좋은 말(馬)' 등 모든 종류에 따라서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다.

만일 '좋은 것'을 '유익한 것'으로 말한다면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한 것처럼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인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좋은 것들을 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물에는 거름이 좋은 것으로 말할 수 있고, 사람에게는 곡식이 좋은 것으로 말할 수 있다.

탁월한 것으로서의 좋은 것들의 경우에는 '좋은 차', '좋은 칼'처럼 대개의 경우 그것이 속한 종류가 함께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의 경우에도 그것의 정확한 표현은 '--에 좋은 것'이다. 그런데 좋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것들이 어떤 좋은 것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단순히 '좋은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 경우 '좋은 것'이라는 말 자체만으로 본다면 그것이 어떤 기능에서 탁월한 것인지, 어떤 것에 유익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것으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좋은 것으로 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국가』 491c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아름다움, 재산, 육체적인 힘, 국가에서의 권력 등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495a에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재산을 말하고 있다.[5] 그리고 『메논』 78c에서는 건강과 재산, 금과 은과 명예와 직위를 좋은 것들로 말하고, 87e에서는 건

5) 『국가』 495a.

강과 육체적인 힘, 아름다움, 재산 등이 좋은 것들이라고 말한다. 『법률』 661a-b에서 좋은 것으로 말하는 것들로는 건강, 아름다움, 재산 그리고 잘 보고, 잘 듣는 것, 자기 마음 대로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불사적으로 되는 것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좋은 것으로 말하는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플라톤은 그것들을 모두 우리 행위의 목적으로 말하고 있다. 다음은 『고르기아스』에서의 대화 내용이다.

소크라테스: 자네는 지혜와 건강과 재산과 다른 그와 같은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들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가?

폴루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들은 때로는 좋은 것에 참여하고 때로는 나쁜 것에 참여하고 때로는 어떤 것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들인가? 예를 들면 앉아 있다든지 걸어간다든지 달린다든지 항해한다든지 하는 것들 또는 돌이나 나무 그리고 다른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네.....

폴루스: 그것들이 내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소크라테스: 중간의 것들을 실행할 때는 좋은 것들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중간의 것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하는가?

폴루스: 중간의 것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따라서 우리가 걸을 때는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 걷는 것이고, 우리가 앉아 있을 때에도 좋은 것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네.(『고르기아스』 467e-468b)

소크라테스: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좋은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도 모든 행위의 목적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나?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르기아스』 499e)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좋은 것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한 좋은 것들은 지혜나 건강이나 재산과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다음 대화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추구되는 것은 우리들

이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만이라고 말한다.

욕구하는 것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욕구하는 것이다.(『뤼시스』 221d)

소크라테스: 욕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욕구하고 사랑하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가?
아가톤: 갖고 있지 않고 그러는 것이겠죠.
소크라테스: 그럴 것 같다고 말하지 말고 욕망하는 것은 결여해 있는 것을 욕구하고 결여해 있지 않으면 욕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연적인가 살펴 봐라. 내 생각에는 그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향연』 200a-b)

우리가 어떤 것을 욕구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이다.

자 소크라테스여,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것들이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향연』 204e)

소크라테스: 메논이여, 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나쁜 것들을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구한다고 생각하는가?
메논: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무엇을 욕구한다고 자네는 말하는가? 소유하는 것을 욕구하는가?
메논: 소유하는 것을 욕구합니다.(『메논』 77c)

만일 어떤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려면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것을 욕구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그러면 생각해 봐라. 자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욕구한다고 말했을 때, 자네가 한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갖고 있기를 원한다는 것 이외의 다른 말을 말한 것인가?(『향연』 200d)

좋은 것과 행위의 목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플라톤에서 우리의 행위의 목적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되기는 하지만 좋은 것이 우리 행위의 목적이라고 주장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판단할 때 플라톤에서 좋은 것은 추구되는 것과 같이 주관적인 것의 함수로 규정될 수는 없다. 그것이 우리에 의해서 추구되는 것은 그것 자신이 우리의 의식과 관계없이 갖고 있는 성질, 즉 우리에 대한 그것의 유익성과 탁월성에 의해서 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3. 행복과 좋은 것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이다.[6] 다음의 대화에서는 우리가 위와 같은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디오티마: ....모든 사람이 언제나 좋은 것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오티마: 좋은 것을 획득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소크라테스: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디오티마: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은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군요. 다시 여기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를 물을 필요가 없지요. 답은 여기서 끝나는 듯 싶어요.(『향연』 205a)

플라톤에서 행복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앞에서 말한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어윈과 같은 학자는 그와 같은 것을 근거로 행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7] 그러나 플라톤에서 행복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플라톤에서 행복이 우리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말한다거나, 어윈과 같이 궁극적인 좋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플라톤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말한다면 『국가』의 좋음의 이데아나 『필레보스』의 좋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인데 플라톤은 그것들을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원인으로 말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나 플라톤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로 번역하는

6) ....금과 은 그리고 장차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획득하게 되는 모든 것들. 『국가』 419a.
7) T. Irwin, Plato's Moral Theory, Oxford, 1977, 51-52쪽.

그리스어는 'eudaimon'인데 그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잘 행위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고, 특히 잘 삶은 행복한 삶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8] 플라톤에서 행복은 많은 곳에서 '잘 행위하다' 또는 '잘 살다'는 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사용한다.

> 모든 사람은 잘 행위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와 같은 질문은 우스운 질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하나?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을 묻는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잘 행위하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으로 우리는 모두 잘 행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잘 행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많은 좋은 것들을 갖게 되면 가능한가? 아니면 이러한 질문은 앞의 질문 보다 더 어리석은 질문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니까.(『유튀데모스』 279a)

> 잘 행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르기아스』 507c)

>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이다.(『국가』 354a)

위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잘 행동함'과 '행복함'은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행복을 '잘 행위함'이나 '잘 삶'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소개된다.

> 그들은 잘 사는 것과 잘 행위하는 것을 행복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니코마코스 윤리학』 1095a 20)

만일 위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에는 행복

---

8)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쓰이는 말이다. 플로티노스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인간에게만 국한시키는 견해를 비판하고 있으며, 식물과 같은 생명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Plotinus, Enneads (with trans. by Armstrong, A. H.), The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1966, 170쪽.

을 '잘 삶'과 '잘 행위함'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위에서 소개된 대화 내용들은 바로 그러한 주장의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9]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행복과 관련하여 말하는 모든 단어에는 '잘' 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행복이 삶이나 행위에서의 탁월성과 관련되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플라톤에서 행복에 대해서 좋은 것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만일 그것을 '좋은'이라는 말을 이용하여 표현한다면, 그것은 '좋은 삶'으로 말할 수 있고, 그것은 '탁월한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0]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통하여 좋은 것들을 추구한다. 이 때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때 좋은 것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서의 좋은 것들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향연』 205a의 대화에서 디오티마는 행복을 우리가 왜 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어느 각도에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곳에서 디오티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을 통해 추구하는 다른 어떤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행복이 우리 행위의 최종적인 목적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대답은 '우리는 왜 행복을 추구하는가'라는 질문을 '그것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인데, 우리는 그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위의 질문은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는 다른 목적을 대라는 주문이었지

9) 『알키비아데스』 116b에서는 잘 행위함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은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곳의 대화만을 토대로 해서 판단한다면 잘 행위함은 행복이라기보다는 좋은 것을 획득함으로써 행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것으로 봐야 한다.

10) 『국가』 578c, 『필레보스』 22d에서는 좋은 삶을 말하고 있다.

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왜 우리가 비참한 삶, 즉 불행한 삶을 택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플라톤에서 행복한 삶은 잘 삶이고, 그것은 곧 탁월한 삶이다. 그리고 플라톤에서 탁월한 사람이 탁월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불행을 선택하지 않고 행복을 선택하는가의 문제는 왜 열등한 사람이 되려하지 않고, 탁월한 사람이 되려 하는가의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왜 열등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탁월한 것을 선택하는가의 질문이 되는 것이다. 이 때 그 질문은 다른 좋은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좋은 것을 선택하는가의 질문이다. 그와 같은 질문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질문이다.

플라톤에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필자는 『파이돈』 97c 이하에서 '이성이 원인이라면 우주를 좋은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열등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탁월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열등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 우리는 간혹 '정신 나갔다'라든지 '비이성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다면 열등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하는 말들이다.

좋은 것에 대한 정의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과 거의 같은 성격의 정의이다. 그러한 정의는 좋은 것을 주관적인 것의 함수로 보는 정의인데 탁월한 것으로서의 좋은 것은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결정되는 성질이다. 우리의 이성이 탁월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탁월한 것이 갖는 우연적인 성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의는 그것에 대한 적당한 정의가 될 수 없다.

4. 자체에 의해서 좋은 것과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좋은 것

4.1. 자체에 의해서 좋은 것

앞에서 우리는 소위 좋은 것으로 말하는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고르기아스』에서 우리의 행위의 목적이 되는 좋은 것으로서 지혜, 건강, 재산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튀데모스』 279a-281e에서는 좋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빠지지 않도록 하라(279c)는 소크라테스의 주문에 따라 좋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소개된다. 그곳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로는 부자인 것, 건강한 것, 아름다운 것, 신체에 있어서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 태생이 좋은 것, 능력, 자신의 국가 안에서의 명예, 절제 있는 것, 정의로운 것, 용기 있는 것, 지혜 등이 있다. 그리고 성공은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말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지혜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 자체에 의해서 좋은 것으로 말한다. 다음은 그것이 자체에 의해서 좋은 것으로 말하는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피리를 잘 부는 것에 있어서는 피리쟁이가 가장 성공적이다. 문법에 대해서는 문법학자가, 바다의 위험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항해사가 가장 성공적이다. 그것은 전쟁에서도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어느 경우이든 지혜를 갖고 행위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성공적이다. 따라서 지혜는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든다. 지혜는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으며 만일 실패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좋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

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올바르게 이용할 때만 도움을 준다. 만일 그것들을 잘못 이용한다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우리들이 앞에서 좋은 것들이라고 말한 것, 즉 재산이나 건강이나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인식은 우리의 행위를 이끌고 올바르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소유와 행위에 있어서 인식이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좋은 것들이라고 한 것들은 만일 무지가 그것들을 이끌면 그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나쁜 것들이다. 그렇지만 양식과 지혜가 이끈다면 그것들은 더 좋은 것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좋은 것들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다만 지혜와 무지 중 지혜는 좋은 것이고 무지는 나쁜 것이다.

위에서는 좋은 것들 중에서 지혜만이 그것 자체에 의해서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이든지 지혜에 의해서 올바르게 이용될 때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메논』 88c-89a에서 사려가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와 같다. 여기에서도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4.2.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좋은 것

『국가』 357b4-d2에서 글라우콘은 좋은 것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지는 않고 그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즐거워 하는 것 그리고 해롭지 않고 그 결과로 즐거운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가져오지 않는 쾌락.
(2) 그것 자체 때문에도 우리가 좋아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 때문에도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사유하는 것, 보는 것, 건강한 것.
(3) 그것들 자체 때문에는 우리가 추구하려 하지 않지만 그것들에 대한 대가나 그것들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때문에 취하려 하는 것. 예를 들면 운동하는 것, 환자가 치료받는 것, 돈벌이.

여기에서 그것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358a)은 『유튀데모스』에서 말하는 그것 자체에 의해서 좋은 것(281d)과는 우선 언어적으로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유튀데모스』에서 자체에 의해서 좋은 것은 지혜 하나뿐인데 여기에서 그것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은 해롭지 않은 쾌락, 사유, 보는 것, 건강한 것 등을 말하고 있다. 다음은 정의가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좋은 것임을 증명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가 하는 말이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 각각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영혼 안에 있으면서 그것 자체에 의해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수라든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상관하지 말고 말입니다.(『국가』 358b)

단지 정의가 부정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들 각각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들 각각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되는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국가』 367b)

당신이 정의가 가장 좋은 것들 속에 속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것들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때문에 획득할 만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자기 자신 때문에 획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자면 보는 것, 듣는 것, 사유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을 비롯하여 겉으로 보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 생산적인 다른 좋은 것들이 그러한 것인데, 당신은 정의에 대해서도 바로 그와 같은 점, 즉 그것 자체 때문에 정의는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이롭게 하고 부정은 해

롭게 한다는 점을 들어 칭찬해야 합니다.(『국가』 367c-d)

위의 주장들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좋은 것이란 그것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11] 그리고 그러한 좋은 것의 예로는 보는 것, 듣는 것, 사유하는 것, 건강 등이 있다. 그러한 것들을 왜 그러한 좋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좋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것의 예로 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밝힘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석가들 중에는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좋은 것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행복과 같이 그것이 가져다 주는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것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원문에는 분명히 정의와 같은 것이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좋은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나온 결과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자체 때문에는 추구되지 않지만 그것이 가져 오는 다른 결과 때문에 추구되는 것이 가져다 주는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체 때문에 추구되지 않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추구되는 것의 예로 의료적 치료나 운동과 같은 것이 있다. 의료적 치료와 같은 것은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줌으로써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그 의료적 치료 행위는 우리에게 고통도 가져다 주면서 건강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예를 들어 수술의 경우 수술이 직접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수술 행위가

11) 따라서 여기에서 말해지는 좋은 것도 무엇보다도 먼저 유익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다른 것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행위는 없는 상태에서 수술 행위가 야기한 조건 하에서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수술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수술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다. 수술 행위는 그것을 받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것이 끝난 후 그것으로부터 나온 결과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우리는 수술이라는 것을 단순히 수술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과정을 통해서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예로 들고 있는 좋은 것들은 치료를 받는 행위를 비롯해서 모두 동사의 형태로 쓰이고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여기에서의 수술은 수술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게 하는 행위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수술 받는 행위에만 국한 된다. 수술 받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통뿐이고 좋은 결과란 수술 행위가 끝난 후의 결과이다.

신체적인 운동의 경우도 운동하는 행위는 직접 우리에게 어떤 신체적 변화와 함께 고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그것이 야기한 신체의 어떤 변화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신체적 운동 과정 자체가 아니라, 그 운동이 완성된 후 그 운동으로부터 나온 결과인 신체적 변화이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도 그 노동 과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고통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노동으로부터 나온 결과, 즉 노동의 산물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에서 말하는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으로서의 좋은 것과 『유튀데모스』에서 말하는 자체에 의해서 좋은 것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유튀데모스』에서 말하는 그것 자체에 의해서 좋은 것인 지혜는 그것 자체의 능력에 의해서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좋은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국

가』에서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좋은 것의 예로 들고 있는 보는 것, 건강한 것 등은 『유튀데모스』의 논의에 따르면 그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이 무지에 의해서 잘못 이용될 경우에는 그것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이나 건강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려에 의해서 올바르게 이용되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올바르게 이용되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비록 사려의 도움을 받아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다른 것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12]

『국가』에서 좋은 것에 관한 분류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부르는 재산이나 음식과 같은 것들이 어느 곳에 속하는 것인지 말하고 있지 않은데, 『국가』의 표현만 가지고는 그러한 것들이 어느 곳에 속하는 것인지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것들은 의료적 치료와 같은 것의 범주에 넣을 수도 없고, 쾌락과 같은 것의 범주에 넣을 수도 없다. 또한 사유하는 것이나 건강한 것의 범주에 넣기도 어렵다. 그것은 그것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도 아니고 회피되는 것도 아니며, 다만 그것이 가져 오는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국가』에서 좋은 것의 분류는 우리에 의해서 추구되는 것 전체에 대한 분류가 되지 않는다.[13] 그리고 만일 음식이나 재산이 그것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이라고

12)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국가』의 정의와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석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가』에서 정의는 인식에 의해서 복종되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은 인식에 의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 의해서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은 『유튀데모스』에서 정의가 그와 같은 것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 발생되지 않고, 『국가』에서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일 수 있는 원인으로 인식이 아니라 좋음의 이데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13) 분류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체 때문에 추구되기는 하지만 그것의 결과 때문에 추구되지는 않는 것의 항목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에 해당하는 것(즉 그것 자체는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이 가져 오는 해로움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분류의 불

말할 수 없다면 돈벌이가 그것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 음식이나 재산 때문에 추구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필자가 판단할 때 『국가』의 구분은 의료적 치료나 힘든 운동처럼 그것 자체는 명백히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좋은 것과 다른 좋은 것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한 것들도 자체 때문에 추구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그와 같은 것들도 모두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좋은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 의료적 치료와 같이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이 될 것이다.

4.3.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비교

그러면 플라톤에서 말하는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좋은 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것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말하는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만일 어떤 행위의 목적을 우리가 그것 자체 때문에 원하고 다른 것들은 그것 때문에 원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면서 가장 좋은 것임이 분명하다.(1094a 18-22)

> 목적은 여러 개로 나타나는데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추구한다. 예를 들자면 재산이나 피리나 그 밖의 다른 기구들이 그것들이다. 따라서 모든 목적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궁극적인 어떤 것은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만일 어떤 하나만 궁극적인 것이면 그것이 우리가 찾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많으면 그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자체에 의해서 추구되는 것을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보다 더 궁극적이라고 말하며,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경우가 없는 것이 그것 자

완전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체에 의해서도 추구되기도 하고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되기도 하는 것들보다 더 궁극적이며, 항상 그것 자체에 의해서 추구되고 또한 결코 다른 것에 때문에 추구되는 경우가 없는 절대적으로 궁극적인 것은 행복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을 항상 그것 자체 때문에 추구하지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추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명예나 쾌락이나 이성이나 모든 탁월성은 그것들 자체 때문에도 추구하지만(왜냐하면 그것들로부터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즉 행복 때문에 추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행복은 결코 그것들 때문에 추구되는 경우는 없고 그것 자체 때문에 추구될 뿐이다.(1097a 25-1097b 7)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으로 행복도 말하고, 명예나 쾌락이나 이성, 그리고 탁월성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 그것들 중에서 행복은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데 그 차이점은 다른 것들은 행복 때문에도 추구될 수 있는 것이지만, 행복은 오직 그것 자체 때문에 추구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쾌락이나 이성이나 탁월성들이 행복과 상관없이도 추구될 수 있는 것으로 말한다는 점이다. 그것들이 자체 때문에 추구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 때문에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가져다 주는 좋은 결과 때문에 추구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플라톤에서 해롭지 않은 쾌락이나 사유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정의나 건강과 같은 것들이 행복과는 관계없이 추구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플라톤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라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 그것은 정의와 같은 탁월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14] 그리고 그것들이 자체적으로 추구된다고 말하는

14) 블라스토스는 여기에서 '좋은'의 의미는 정의로운 사람 자신에게 좋은(good for just man himself), 즉 그의 행복에 기여한다(contrbutes to his well-being or happiness)는 의미에서의 '좋은' 이라고 말하고 있다. G. Vlastos, "Justice and Happiness in the Republic", in

것은 그것 자체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은 그것의 결과가 행복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그것과는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고, 『국가』에서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구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추구되는 것으로 행복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해석할 때만 이해할 수 있다. 플라톤에서 행복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커녕 좋은 것의 하나의 예로도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

만일 플라톤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는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다면, 『뤼시스』의 다음 내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들이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것 때문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예를 들어 만일 질병이 없다면 약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좋은 것은 나쁜 것 때문에 나쁜 것과 좋은 것의 중간인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 때문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뤼시스』 220d)

위에서 좋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만일 그와 같은 의미로 말하는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것을 말한다면, 아마 행복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플라톤에서 그렇게 말하는 곳은 없다.

Plato (Notre Dame), 1978, 67쪽.

5. 탁월성

5.1. 탁월성과 좋은 것

어떤 것들을 그것들이 수행하는 기능의 동일성에 의해서 동일한 종류로 말하는 경우, 그 종류에 속한 것들은 그 기능의 발휘 능력 여부에 따라 우열의 차이를 갖는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자신과 동일한 종류에 속한 다른 것들보다 자신의 기능을 더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플라톤에서 바로 그 능력을 탁월성이라고 말한다. 어떤 것이 좋은 것(탁월한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탁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들이나 좋은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떤 탁월성이 있어야 좋은 사람이나 좋은 것들이 되는가? 내 생각에는 필연적인 것 같네.(『고르기아스』 586d)

그리고 탁월한 사람은 또한 정의상 행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플라톤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삶은 영혼의 기능이며[15] 인간의 탁월성은 영혼의 탁월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행복한 사람들은 동시에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것입니다.
> (『법률』 742e)

> 따라서 칼리클레스여,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절제있고, 정의롭고, 용기있고, 경건한 사람이 완전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좋은 사람은 잘 그리고 훌륭하게 행위하고 잘 행동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고르기아스』 507a)

따라서 탁월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15) 또한 삶은 어떤가? 그것은 영혼의 기능이라고 우리는 말할 것인가? 물론이다. 『국가』 353d.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그 사람의 탁월성 덕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탁월성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좋은 것은 유익한 것으로서의 좋은 것이다. 즉 어떤 것의 탁월성은 그것이 탁월한 것으로서의 좋은 것이 되게 하고, 그 자신은 그것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좋은 것이 된다.[16]

5.2. 사회적 탁월성과 자연적 탁월성

운동선수와 같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 일반에 대한 탁월성을 말하는 것은 인간을 기능의 측면에서 고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사람에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능의 측면에서 사람들간의 우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물론 어떤 사람을 어떤 특정한 기능의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사람들을 구두 만드는 기능에서만 비교한다면 가장 탁월한 사람은 구두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구두를 만드는 기능이 우리 사람들이 갖는 고유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탁월한 사람과 탁월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와 같이 비본질적인 기능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사람이 본질적으로 갖는 기능, 즉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기능의 측면에서 본 구분이어야 한다.[17]

인간의 기능에 관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수행하는 기능, 즉 그 기능을 수행

16) 그리고 탁월성에 의해서 우리는 탁월하게 된다. 따라서 탁월성은 유익한 것이다. 『메논』 87e.
17)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사람의 유능성은 기능성의 측면에서 고찰한 이성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인 것이다. 유능성은 사람의 사람다움의 극한치로서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질의 완전한 실현이다. 박홍규, 프로타고라스편에 대한 분석, 철학 연구 11집, 1976, 20쪽.

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그 기능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면 다음의 대화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서 논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 올바르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면서도 벌을 받지 말아야 하고 용기와 사려로써 그 가장 큰 욕망에 봉사해야 하며,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항상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숨기면서 부끄러움이라는 말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방종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앞에서 내가 말한 대로 자연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이 쾌락을 충족할 수 없으니까 절제나 정의를 칭찬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왕의 아들이었거나 아니면 본성상 권력을 잡고 전제 군주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절제나 정의보다 더 부끄럽고 나쁜 것이 무엇이겠는가? ..... 당신이 추구한다고 말하는 진리에 따르면 사치나 방종이나 자유가 원군을 가질 경우 탁월성이고 행복이다.
> (『고르기아스』 491e-492c)

위의 주장에서는 자연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칼리클레스는 탁월한 사람의 특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대화들을 보자.

>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육이란 어려서부터 탁월성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정의롭게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것을 배우면서 완전한 시민이 되는 것을 욕구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즉 올바르게 교육을 받은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탁월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잘못 이루어졌을 경우 그렇지만 교정이 가능한 경우 우리는 모든 능력을 다해 그것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법률』 643e-644a)

그가 배우는 것은 자신의 집안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집안 일에 관한 탁견과 국가

의 일에 있어서 잘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일들에 대한 탁견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내가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정치술을 말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탁월한 시민들로 만드는 일을 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소크라테스여, (그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공언하는 바이다.(『프로타고라스』 318e-319a)

그러나 정의와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탁월성에 대한 조언을 들을 때에는 거의 모든 사람의 조언을 듣는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탁월성을 갖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로타고라스』 322e-323a)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의나 다른 사회적 탁월성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프로타고라스』 323a)

다음과 같이 생각하자. 만일 국가가 존재하려 한다면 모든 시민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어떤 하나가 있는가? ..... 그리고 만일 그 하나가 정의와 절제와 경건이라면 그리고 그것들을 합해서 하나로 인간의 탁월성이라고 내가 말한다면.
(『프로타고라스』 324d-e)

만일 그에게 그것에서 본 것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사람들의 성품 속에 넣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강제가 주어진다면, 그는 절제와 정의 등 모든 대중적인 탁월성에 대한 졸렬한 구현자가 될 것인가? 그럴 리 없습니다.(『국가』 500d)

우리가 절제와 정의라고 부르는 대중적 사회적 탁월성.(『파이돈』 82a-b)

칼리아스여, 만일 당신의 두 아들이 망아지나 송아지가 되었다고 해보세. 우리들은 그 둘을 그에 맞는 탁월성에 있어서 아름답고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네. 그는 아마 말 기르는 사람이나 농부가 될 것일세. 그런데 그들이 사람이니 당신은 그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취할 것인가? 그와 같은 탁월성, 즉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탁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변명』 20a-b)

위의 대화들에서는 탁월한 사람은 곧 탁월한 시민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의 대화편 많은 곳에서 인간의 탁월성을 위와 같이 사

회적 탁월성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연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과 시민으로서 탁월한 사람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자연적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칼리클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시켜 주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에서도 우열의 차이는 동물들에서와 같이 힘의 차이에서 난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사람의 자연적 탁월성이란 힘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트라쉬마코스나 『고르기아스』의 칼리클레스의 주장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론은 부정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반론 역시 인간의 탁월성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반론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크라테스 자신도 그들이 말하는 자연적 능력으로서의 탁월성의 개념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칼리클레스의 주장에서는 사회적 탁월성으로 인정되고 있는 절제나 정의는 유약함의 상징에 지나지 않으며, 용기와 지혜는 그 힘의 봉사자로서의 역할만 인정된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탁월성에 관한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칼리클레스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의와 절제와 같은 사회적인 탁월성이 자연적 탁월성이기도 하는가의 문제이다. 『고르기아스』의 칼리클레스나 『국가』의 트라쉬마코스의 주장은 그것들을 인간의 탁월성으로 보는 것은 관습에 의한 사람들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의 기준으로 절제라든지 정의를 말하는 것은 약자들이 강자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그들의 주장은

정의나 절제가 사회적 탁월성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탁월성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그것들은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연적 탁월성이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프로타고라스』에서 프로타고라스는 정의가 인간의 탁월성이라고 주장한다. 그 점에서만 생각할 때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은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하는 정의는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그가 말하는 정의란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은 정의를 비롯한 사회적 탁월성을 갖춘 사람들만이 갖고 있다. 그런데 만일 정의가 그와 같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그것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자연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 프로타고라스는 그와 같은 정의를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트라쉬마코스나 칼리클레스의 입장에서는 통치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의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만이 지배할 수 있다. 칼리클레스는 힘이 지배하는 것만이 진정한 정의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칼리클레스의 주장이다.

> 내 생각에 자연은 다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더 우월한 사람이 더 열등한 사람보다 그리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을.(『고르기아스』 483d)

칼리클레스는 위와 같이 주장하고 나서 우리가 제정한 법과 자연의 법을 대조시킨다.[18] 그는 자연의 법, 즉 자연에 있어서의 정의를 마치 사

자가 토끼를 잡아 먹듯이 인간에 있어서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말하고 우리가 제정한 법에 따른 정의는 동등함을 갖는 것으로 말한다.

만일 자연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지배해야 한다는 점에서만 본다면 프로타고라스나 소크라테스나 칼리클레스나 모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자연적인 탁월성은 각각 다르다. 트라쉬마코스나 칼리클레스는 동물들의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탁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프로타고라스는 탁월한 사람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인 정의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 그러한 정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자연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으로 보기는 하지만, 통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국가에 좋고 나쁜 것을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식 능력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았다.[19]

『국가』나 『고르기아스』의 주제는 바로 정의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따라서 그것이 사회적 탁월성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 탁월성이기도 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플라톤에서 사회적 탁월성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모두 자연적 탁월성이기도 하다는 전제 위에서 그것들이 구별 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탁월한 사람이면 자연적으로 탁월한 사람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성립한다. 따라서 비록 '탁월한'의 의미와 '유익한'의 의미가 구별되

---

18) 『고르기아스』 483e.

19) 『고르기아스』에서 자기에게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연적인 능력에서도 인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르기아스』 468c-e.

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탁월한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다음은 『메논』에서의 그 예이다. 여기에서 탁월한 사람은 국가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크라테스: 우리들이 탁월한 사람들은 유익해야 하고 다르게는 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다. 그런가?
메논: 그렇다.(『메논』 96e-97a)

소크라테스: 그리고 탁월한 사람은 유익하다고 동의했다.
메논: 그렇다.
소크라테스: 이제 좋은 사람들이 국가에 유익한 것은 인식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올바른 억견에 의해서이기도 하므로, ...(『메논』 98c)

Hichcock는 플라톤에서 '탁월한'의 의미와 '유익한'의 의미가 구별되어서 쓰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일반적인 용법과 맞지 않는 예로 위의 대화를 드는데[20] 필자가 생각할 때에는 위의 예는 앞에서 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예외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20) D. Hichcock, "The Good in Plato's Republic", Apeiron, 1985, 83쪽.

6. 좋음의 이데아

『국가』 4권에서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가 좋은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마무리 된다. 그 후 소크라테스는 좋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통치권을 바르고 정의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정한 앎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상 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철인 통치체제를 든다. 그리고 철학이 무엇이고 철학자가 어떠한 사람이며 그들이 소피스트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한 후 통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으로서 좋음의 이데아를 말한다.[21] 소크라테스가 좋음의 이데아에 대해서 말하자 대화 상대자들이 그에 대해서 더 설명해줄 것을 소크라테스에게 요구한다. 그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세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

6.1. 태양의 비유

소크라테스는 먼저 좋음의 이데아를 태양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태양은 좋음의 이데아에 가장 비슷한 것으로서, 508e에서 그것이 태양을 자신과 대비되는 것으로 생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태양이 좋음의 이데아의 자식이라는 말은 507a, 508b에서도 말하고 있으며, 506e에서는 좋음의 이데아가 태양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좋음의 이데아는 태양을 생산하였다고 말하고(508c) 있으며, 517c에서 그것이 빛과 태양을 낳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올바르고 아름다운 것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540에서는 모든 것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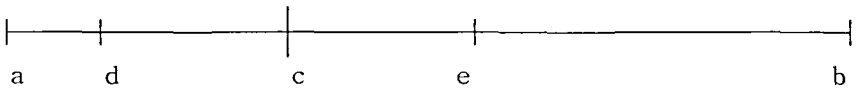
21) 미하엘 보르트, 『철학자 플라톤』, 한석환 옮김, 이학사, 2003, 112쪽 참조.

a)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된다.(508b)
b) 좋음의 이데아는 존재다.(508d)
c) 좋음의 이데아는 가지적인 대상들에게 진리를 준다.(508e)
d) 가지적인 대상들을 인식하는 주관에게는 능력을 준다.(508e)
e)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과 진리의 원인이다.(508e)
f) 인식과 진리는 좋음의 이데아가 아니다.(509a)
g) 인식과 진리는 좋음의 이데아의 모습이다.(509a)
h) 좋음의 이데아에 의해서 형상들에게 존재가 덧붙여졌다.(509b)
i) 좋음의 이데아는 존재(ουσια)가 아니면서 나이와 능력에 있어서 그것들을 능가하면서 존재(ουσια)를 넘어섰다.(509b)

6.2. 선분의 비유

태양의 비유를 통하여 좋음의 이데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것들을 말하자, 글라우콘은 그와 같은 내용이 믿기지 않는 듯 소크라테스가 좋음의 이데아에 대해서 말한 것들이 놀라운 초월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은 인식이나 쾌락 또는 그와 같은 차원의 어떤 것이 말해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소크라테스가 형상들을 존재하게 하였고 태양을 생산하였으며, 인식과 진리의 원인으로 말하는 좋은 것을 말했기 때문이다. 글라우콘으로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그로서는 당장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또한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게 이야기를 계속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태양과 비슷한 점에 대해서 빠뜨리지 말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아직 하지 않은 말이 많은데 가능한 한 일부러 빠뜨리지는 않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선분의 비유를 통해서 좋음의 이데아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다.

선분의 비유는 이와 같이 태양과 비슷한 점에 있어서 아직 더 말하지 않은 것들을 자세하게 말하기 위해서 도입된 비유이다.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한 것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 선분 ac는 가시적인 대상들의 영역이고, 선분 cd는 가지적인 대상들의 영역이다. (509d)

b) 좋음의 이데아는 cb의 영역을 지배하고 태양은 ac의 영역을 지배한다.(509d)

c) 위 도형에서 간격들의 길이의 비례관계는 다음과 같다. ac:cb = ad:dc = ce:eb (509d)

d) 위에서 간격들의 크기는 각 영역에 속한 것들의 명확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509d)

e) ad는 dc의 모상들이다.(509e)

f) ad는 우선 그림자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물이나 매끄러운 표면에 비추어진 영상들의 영역이다.(510a)

g) dc는 우리들과 같은 동물이나 식물들 그리고 우리들이 만든 물건들이다.(510a)

h) 위 구분들은 또한 진실성에 따른 구분이기도 하다.(510a)

i) 억견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이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상과 원형의 관계와 같다. (510a)

j) ce는 영혼이 반드시 앞부분의 것들을 모상으로 이용해서 놓인 것으로부터 시초로 올라가지 않고 끝으로 가면서 탐구할 수밖에 없다.(510b)

기하학이나 논리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홀수나 기수, 그리고 도형들과 세 종류의 각들 그리고 그것들과 비슷한 것들을 각각의 방법에 있어서 놓고 나가면서,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놓인 것들로 삼고, 그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주고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출발하여 나머지 것들을 거친 다음 그들이 탐구하려 했던, 바로 그것에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된다.(510c-d) 그들은 가시적인 형상들을 이용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들의 원형인 삼각형 자체나 직경 자체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다. 즉 그들은 그들이 그리는 도형에 대해서 사유하지는 않는다.(510d)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것들이나 그리는 것들(그것들에는 그림자들이나 물속의 영상들도 속해 있다)도 모상으로 이용하면서 추론적 사고(διανοια)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고 노력한다.(510e-511a)

k) eb는 놓여진 것으로부터 다른 것 밑에 놓여질 수 없는 시초로 가면서 모상들을 사용함이 없이 형상 자체들을 통한 방법으로 탐구한다.(510b) 그 경우에는 놓여진 것들은 시초로 간주되지 않고, 말 그대로 발판이나 도약대로 간주되며 모든 것의 시초인 놓여지지 않은 것까지 가서 그것을 파악한 후 다시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따라서 끝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형상들을 통해 형상에 도달하게 된다.(511b-c)

l) eb는 이성 자신이 대화의 능력으로써 파악하는 것이다.(511b)

m)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영혼의 상태들이 생기게 되는데 eb에 대해서는 이성이 ce에 대해서는 추론적 사고(διανοια)가 dc에 대해서는 믿음(πιστις)이 ad에 대해서는 짐작(ειηασια)이 대응한다.(511d-e)

선분의 비유에서 사고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사물들의 세계와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사물들의 세계의 구별은 선분 cb와 ac의 구별과 대응한다. 먼저 사고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보자. 선분 eb는 이데아들의 영역을 나타내고, 인식형식으로 배정된 것은 이성이다. 바꿔 말하면 이데아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라는 것이다. 선분 ce에 대응하는 것은 수학적 대상들, 즉 수와 기하학적 도형들의 영역이다. 그것들은 오성을 통해 인식된다. 이들 이데아들과 수학적 대상들은 인식이 가능한 사물들의 영역에 속하지만, 나머지 다른 두 영역 dc와 ad에 속하는 대상들, 우리의 경험 세계의 감각적으로만 지각할 수 있는 사물들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의견만 형성된다. 선분 dc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세계의 실물들을 지시하고, 우리가 그것들에 관하여 상징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그저 믿음만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선분 ad는 우리의 가시적 세계의 실물들에 대해 존립하는 그림자와 영상의 영역에 대응하고, 플라톤에 따르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짐작 또는 추측만 가능하다.

6.3. 동굴의 비유

선분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여러 가지 차원의 대상과 그에 대응하는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했다. 이제부터는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한다. 동굴의 비유는 그 인식을 얻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인식이 있는 상태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영혼이 처한 상황과 경험이 어떤 것인가를 비유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원문에서는 교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우리 인간의 본성의 상태에 관한 것이라고 표현된다. 그러면 동굴의 비유를 통하여 말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 동굴 속의 상황

a) 사람들은 땅밑의 어떤 동굴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그 동굴은 빛으로 향해 길게 뻗어 있는 입구를 가지고 있다.(514a)

b)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발과 목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정면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514a-b)

c) 불과 사람들 사이에 벽이 세워져 있다.(514b)

d) 그 벽을 따라 그리고 그 벽 위로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고안물들, 예컨대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이라든지 돌이나 나무로 된 동물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것들을 나르는데 그 나르는 사람들 중에는 지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다.(514b-515a)

e) 그들은 우리들과 비슷하다.(515a)

f) 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서 벽 위로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면에 불빛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림자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볼 수 없다.(515b)

g) 그들은 그들이 보는 것들에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들 자체라고 생각한다.(515b)

h) 그것들을 나르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벽에 반사될 때 그들은 그 소리를 그림자들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한다.(515b)
i) 그들은 그 그림자들만 진실되다고 생각한다.(515c)

(2) 동굴 밖으로의 여행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일반 사람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한 후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진실된 것들을 알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f) 자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경우 그와 같은 속박과 어리석음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진다. 그들 중 한 사람이 풀려나 갑자기 일어나서 목을 돌리고 걸어서 불빛 쪽을 쳐다보게 된다. 그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불빛 때문에 그들이 그림자만 보았던 실물들을 자세히 볼 수가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전에는 가짜만 보았지만 그러나 이제 너는 더 실물에 접근하여 훨씬 더 실재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그 실물들을 하나하나씩 그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물어 본다면 그는 당황하여 그 이전의 것들이 지금 것보다 더 진실되다고 말하게 된다.(515c-d)
g) 만일 그 불빛 자체를 강제로 보게 한다면, 그는 눈이 아파서 뒤로 돌아 그가 잘 볼 수 있는 것들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것들이 실물들보다 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한다.(515e)
h) 그리고 만일 누군가 그를 강제로 그곳으로부터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게 하여 태양빛이 있는 곳에 도달하기 전에는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는 인도되면서 괴로워할 것이고, 불빛에 도달해서는 그의 눈은 태양의 빛으로 가득차게 되어 지금 진실되다고 말한 것들 중 어떤 것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다. 만일 위에 있는 것들을 보려면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그림자를 보는 것이 가장 쉬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물속에 비친 사람이나 다른 것들의 상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을 직접 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 자체를 별들과 달의 빛을 쳐다보면서 관찰하는 것이 낮에 태양이나 태양의 빛을 보면서 관찰하는 것보다 관찰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인데 물이나 다른 것들에 비친 태양의 상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 곳에서 그것

자체를 보면서 그것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515e-516b)

(3) 좋음의 이데아에 관한 주장들

동굴의 비유를 통하여 위와 같이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묘사된 후 좋음의 이데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말해진다.

i) 그리고 나서 태양에 대해서 그것이 계절과 해를 비롯하여 가시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재하면서 그들이 관찰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516b-c)

j) 가지적인 세계에서 좋음의 이데아는 최종적인 것이어서 여간해서 보이지 않는다.(517b)

k) 그러나 그것이 보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끔 한다. 즉 그것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올바르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것은 가시적인 영역에서는 빛과 그것의 지배자를 낳으며 이성의 영역에서는 진리와 이성을 제공한다.(517c)

l)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현명하게 행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517c)

위 주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좋음의 이데아가 단지 가지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영역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올바르고 아름다운 것들의 원인이라고 말해졌다는 점이다.[22] 그리고 그것은 빛과 태양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좋음의 이데아가 태양을 생산하였다는 주장과 내용상 동일한 주장이다. 그 점은 여기에서의 αιτια를 능동인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위에서는 또한 좋음의 이데아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현명하게 행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22) 2권에서는(379b) 신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아니라 좋은 것들만의 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주장과 이곳의 내용은 유사한 점이 있다.

있다. 우리는 앞에서 통치자는 좋은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통치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앞에서 말한 것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장은 그럴듯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기도 하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충분히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공부하면서 평생을 살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의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전자는 그들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행위하는 것들을 하면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하나의 삶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519c)

위의 주장에 따르면 좋음의 이데아를 알고 있지 못하면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목표를 갖지 못한다. 그러한 주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음의 주장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 좋음의 이데아는 국가나 개인을 조화있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모범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540a)

505e에서는 좋음의 이데아가 모든 영혼이 추구하는 것으로 말한다. 그 때의 추구 목적은 그것에 다가간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소유한다든지 하기 위한 추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좋음의 이데아가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목표 또는 모범으로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좋음의 이데아가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우리가 닮으려 하는 목적으로서 소유를 위하여 추구하는 목적과는 의미상 다르다.

좋음의 이데아는 분명 하나의 형상이지만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진 내용들은 다른 형상들이 갖는 특징들 보다는 좋음의 이데아 자체만이 갖는 특징에 대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모범이라는 용어는 그것이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다. 만일 그것이 탁월함의 모범이라면 모든 탁월한 것들의 모범

이어야 한다. 그것은 곧 모든 탁월한 것들에 공통적인 하나의 형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좋음의 이데아가 통치자가 모범으로 삼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윤리적인 개념이지 우주론적인 개념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플라톤에서의 훌륭한 국가와 정의는 훌륭한 사람과 사람에서의 정의의 내용을 토대로 정해진다. 그리고 초기 대화편에서부터 자연에 대해서도 윤리적 개념인 정의라는 말이 적용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플라톤에서 윤리적인 목적과 우주론적인 목적이 반드시 구분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한 만일 윤리의 문제가 도덕적인 것이라고 모르지만 플라톤 윤리학의 주요 문제는 인간의 자연적 탁월성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나 국가의 경우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탁월함의 공통된 형식적 조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7. 맺는 말

화이트헤드가 "나는 유럽의 철학적 전통을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특징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23]라고 말한 것처럼 서양철학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플라톤에서 좋은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좋음의 이데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플라톤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간주되고 있다. 좋은 것은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플라톤은 행복은 잘 삶으로 말한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은 탁월한 사람만이 잘 살 수 있으므로 플라톤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된다. 우리가 왜 비참한 삶을 원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모자란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탁월한 사람이 되려 하는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플라톤에서 우리가 불행을 원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전제 위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즉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따진다.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는 어떤 것이 우리의 행복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어떤 것이 행복인가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어떤 것이 탁월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탁월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탁월성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행복인가의 문제는 어떤 것이 탁월성인가의 문제와 동일한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고 어떤 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

23) A. 화이트헤드, 『과정과 실재』, 오영환 옮김, 민음사, 1991, 110쪽 참조.

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탁월한 것들과 열등한 것들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플라톤에서 인간이나 국가나 자연이나 그것을 탁월한 것으로 만드는 요소는 동일하다는 전제 위에서 그것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어떤 것을 탁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곧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면, 우주에서의 탁월성에 대한 탐구는 곧 우주의 존재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 된다. 결국 플라톤에서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문제가 우주의 존재의 근원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들을 탁월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탁월한 것으로 만드는 형식적 조건과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플라톤에서는 적어도 통치자가 될 사람은 그러한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왜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플라톤에서는 위와 같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정의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탁월성은 어떤 것인가 등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모두 자연에 관한 사실의 문제로 환원되어 다루어진다. 그와 같은 점에서 볼 때 플라톤의 윤리학이 형이상학적 윤리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 참고 문헌

Plato, The Republic of Plato Ⅰ, Ⅱ, text and notes by Adam, J., second edition with an introduction by D. A. Rees, Cambridge, 1975.

Plato, The Republic of Plato, trans. by Cornford, F. M., Oxford, 1941.

Plato, Platonis Opera Ⅳ, recognovit brevique adnotatione cretica instruxit Burnet, J., Oxford, 1982.

Plato, The Republic Ⅰ, Ⅱ, with trans. by Shorey, P., The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1969, 1946.

Plato, Timaeus, with trans. by Bury, R. G., The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1966.

Plato, Protagoras Meno Euthydemus, with trans. by Fowler, H. N., The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1967.

Plato, Apology Crito Phaedo Phaedrus, with trans. by Lamb, W. R., The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1971.

Plato, Laws Ⅰ, Ⅱ, with trans. by Bury, R. G., The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1967.

Plato, Lysis Symposium Gorgias, with trans. by Lamb, W. R. M., The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1967.

Plato, Philebus, with trans. by Lamb, W. R. M., The Classical Library, Harvard, 1975.

Plato, Theaetetus Sophist, with trans. by Fowler, H. N. F., The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1967.

Hitchcock, D., 『The Good in Plato's Republic』, Apeiron, 1985.

Irwin, T., 『Plato's Moral Theory』, Oxford, 1977.

Plotinus, 『Enneads』, The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1966.

Vlastos, G., 『Justice and Happiness in the Republic』,Notre Dame,

1978.
플라톤, 박종현, 『플라톤의 국가』, 서광사, 1997.
플라톤, 박종현, 『메논. 파이돈. 국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플라톤, 박종현, 『플라톤의 필레보스』, 서광사, 2004.
플라톤, 박종현, 『티마이오스』, 서광사, 2000.
플라톤, 박종현,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 서광사, 2003.
플라톤, 김태경, 『소피스테스』, 한길사, 2000.
아리스토텔레스, 최명관,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9.
김태길, 『윤리학』, 박영사, 1983.
프랑케나, W. K., 황경식, 『윤리학』, 종로서적, 1984.
화이트헤드, A., 오영환, 『과정과 실재』, 민음사, 1991.
미하엘 보르트, 한석환, 『철학자 플라톤』, 이학사, 2003.
박홍규, 「프로타고라스편에 대한 분석 (Ⅰ)」, 철학 연구 11집, 1976.